【답사기】

철길을 따라 만주의 근현대를 걷다

-2026 여름 남만주 철도 답사기-

송 인 주*

Ⅰ. 들어가며: 철도가 빚어낸 남만주의 근현대

2026년 6월 28일. 습기를 머금은 초여름 더위가 시작되는 때. 만주학회와 박경리 '토지' 연구회 선생님들과 남만주 철도 답사에 나섰다. 아무래도 전공이 만주사이다 보니 그래도 만주 지역을 여러 번 다녔다. 첫 번째 답사는 2016년 박사과정 1학기 때 대학원 후배들과 청나라의 중심지였던 북경, 열하 심양을 갔던 것이고 두 번째 답사는 2018년 만주학회와 중국근현대사학회 선생님들을 따라 하얼빈-치치하얼-내몽골 만저우리에 이르는 북만주 답사였다. 이번에는 남만주 지역을 가게 되어 그래도 북만주-남만주 지역을 얼추 모두 경험하게 되었으니, 그래도 어디 가서 만주 연구자로서 만주를 직접 경험해 봤다고 할 수 있게 되었다.

'남만주'라는 명칭은 근대 제국주의가 낳은 명칭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에게 친숙한 '만주'라는 명칭도 본래 청나라가 여진을 포함한 자국의 지도층을 이루는 핵심 종족을 지칭하는 명칭이었다. 그런데 17세기 청에서 선교활동을 하던 유럽 선교사들이 이 지역을 '만주인이 살던 땅'의 의미인 '만주리아'로 부른 것이 일본에 전해져서 '만주'라는 지명으로 정착되기 시작하였고 19세기 말 일본이 대륙으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만주'라는 것이 지명으로 고착화되었다. '남만주'라는 것

* 서강대학교 디지털역사연구소.

www.kci.go.kr

은 일본이 이 지역의 권익을 두고 러시아와 다투는 과정에서 임의적으로 설정한 지리적 범주로 대체로 요동반도에서 북쪽으로 장춘을 포함한다.

'남만주'라는 공간은 고대부터 만주의 정치, 문화적 중심지였다. 요하를 중심으로 펼쳐진 드넓은 요심평원은 만주 지역에서 가장 농사 짓기 적합한 공간이었고 요하의 수운은 인근의 산동 반도와 한반도로 교류하기 좋았다. 이에 따라 역사적으로 여러 국가들이 이 지역을 장악해야 만주 전역의 패권을 장악할 수 있었는데, 중화제국의 경우 한이 이 지역에 요동군을 세운 이래로 이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였고 만주에서 발흥한 국가들도 이 지역을 점거한 후 만주 지역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의 패권을 쥘 수 있었다. 고구려의 경우 광개토왕 시기 요동성을 점거한 후 동북아의 패권 국가로 발돋움하였고 청의 경우 이 지역의 심양을 장악한 후 중원을 장악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였다.

남만주는 고대부터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했으나, 그 지정학적 가치가 본격적으로 부각되면서 발전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중엽부터라고 할 수 있다. 청나라는 19세기 이전까지 자신들의 발상지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중국 내지의 한인, 조선인, 러시아인들의 만주 이주와 정착을 통제하는 봉금 정책을 폈다. 하지만 19세기 이후 청나라의 통제력이 약화되고 러시아, 일본 등 제국주의 국가들의 만주 진출이 가속화되면서 남만주 지역에 대한 제국주의 국가들의 이권 경쟁이 치열해졌고 청의 봉금 정책이 무너지면서 중국의 한인, 조선인, 러시아인, 일본인 등 다양한 지역의 인구가 만주로 모여들었다. 그러면서 남만주를 비롯한 만주 지역의 풍경도 급격히 변화하였다.

남만주를 비롯한 만주 지역의 급속하고 거대한 변화를 이끌어낸 가장 중요한 동력은 바로 철도였다. 철도는 근대화의 산물이기도 하지만 제국주의의 산물이기도 하였다. 특히 만주 지역에서는 제국주의 열강이 철도 부설을 통해 경쟁하였는데, 대표적인 것이 러시아가 부설한 동청철도, 일본이 완성한 남만주 철도였다. 러시아와 일본은 각자의 영역에서 철도를 부설하면서 만주에서의 자국의 영향력을 넓히고 급기야 러일전쟁이라는 군사 충돌까지 벌이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철도 부설은 한편으로는 만주의 급속한 도시화, 산업화를 이끌어 내어서, 철도역

www.kci.go.kr

이 들어선 만저우리, 하얼빈, 장춘, 대련 등은 만주 지역의 새로운 거점 도시로 성장하게 되었다.

또한 철도가 부설되면서 다양한 사람들이 저마다의 생각과 꿈을 갖고 만주로 몰려들게 되었다. 이토 히로부미는 조선에 대한 식민지화를 확정하기 위해 대련에서 하얼빈행 기차를 탔고 안중근은 이러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여 한국 독립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가슴에 권총을 품고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하얼빈으로 향하는 열차를 탔다. 박정희, 최남선 등은 자신의 미래와 출세를 위해 만주국 장춘행 열차를 탔고 또한 백석, 이효석 등 다양한 조선의 문필가, 지식인들이 각자의 감상과 생각을 갖고 만주행 열차를 타고 만주에서 자신의 견문과 문학적 상상력을 넓혔다.

이번 남만주 철도 답사는 4박 5일 동안 만주의 철길을 따라서 대련, 심양, 장춘, 하얼빈 등 도시를 거닐며 만주로 향한 다양한 인간 군상들을 생각하고 철도가 만들어 낸 만주 근현대사의 빛과 그림자를 살펴보는 시간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만주의 철길을 따라 그 여정을 시작해 보겠다.

Ⅱ. 대련: 만주로 들어가는 입구

1. 요동반도의 문호 대련의 시작과 러시아 거리

2026년 6월 29일 아침 9시에 인천공항을 출발한 비행기는 현지 시간 아침 9시에 요동반도의 대련공항에 닿았다. 한국과 중국의 표준 시차가 1시간 차이이니까 인천과 대련은 비행기길로 딱 1시간이 걸리는 셈이다. 대련은 필자의 생각보다 한국과 훨씬 가까운 곳이었다.

대련은 요동반도의 가장 끝부분에 위치한 도시이다. 대련 자체는 19세기 말 건설된 근대 도시이지만 대련이 위치한 요동반도는 고대부터 중국과 한반도를 연결하는 중요한 해로 상에 위치하였다. 19세기 중국 산동반도와 한반도의 인천 일대

www.kci.go.kr

를 잇는 황해 직통 항로가 발달하기 전에는 산동 반도 북부의 묘도 열도와 요동반도, 평안도, 황해도를 거쳐가는 연안 항로가 주로 이용되었고 요동반도는 그 중간에 위치한 것이다. 따라서 대련 일대를 차지하면 중국과 한반도 연안 해로를 통제할 수 있었다. 고구려가 이 일대에 비사성을 쌓은 이유도 있었다.

대련공항에 도착한 답사단은 대련의 유명 관광지가 된 '러시아 거리'로 향했다. 러시아 거리는 대련이라는 도시의 탄생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간이다. 대련은 19세기 말 이전까지 한적한 어촌에 불과한 곳이었다. 그러한 한적한 어촌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1895년 청일전쟁 이후였다. 청일전쟁에 승리한 일본은 시모노세키 조약을 통해 청으로부터 막대한 배상금과 함께 요동반도를 할양받게 되었다. 그런데 일본의 요동반도 획득에 제동을 건 존재가 있으니 러시아였다. 러시아는 프랑스, 독일과 함께 일본을 압박하여 요동반도를 포기하게 하였다. 그 대가로 러시아는 청으로부터 요동반도의 끝부분인 여순 항구와 그 일대를 조차받게 되었다.

러시아가 요동반도에 집착한 까닭은 얼지 않는 항구, 즉 부동항을 찾아서 해양으로 진출하고자 했기 때문이었다. 러시아는 유라시아 북부의 대부분을 차지한 육상 제국이었지만, 바닷길로는 나가기 어려웠다. 발트해와 북극 항로는 쉽게 얼고 흑해 일대는 오스만 제국과 영국에 의해 가로 막혔다. 이러한 해양에서의 포위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러시아는 동쪽으로 눈을 돌려서 1850년대부터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부설하였고 1898년 청으로부터 동청철도 부설권을 획득하여 만주 지역을 관통하는 철도를 부설하기 시작하였다. 러시아는 동청철도를 처음 계획할 때 만저우리에서 동쪽으로 하얼빈으로 향했다가 두 개의 지선 철로를 부설하고자 했는데 한 지선은 하얼빈에서 남쪽으로 요동반도 여순구로 이어지는 것이고 또 다른 지선은 하얼빈에서 동쪽으로 연해주의 블라디보스토크 항구로 이어지는 것이었다.

요동반도가 동청철도와 이어지게 되면서 러시아는 여순 항구를 군항으로 삼는 한편 그 배후 지역에 새로운 러시아식 도시를 만들기 시작하였다. 러시아는 이 도시를 처음 건설하면서 먼 곳의 의미인 '달니', 혹은 '다르니'라는 이름을 붙였는

www.kci.go.kr

데, 이 러시아식 이름을 이후 일본이 다시 점령한 후 중국어로 음차하여 부른 것이 바로 '대련'이다. 이것이 바로 대련이라는 도시의 첫 시작이었다.



[그림 1] 대련 러시아 거리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으로 인해 대련은 전반적으로 중국이라기보다는 러시아의 느낌이 강하게 풍겼다. 비단 러시아 거리 뿐만 아니라 대련공항 주변 건물들도 러시아식이 많이 있었다. 러시아 거리는 동청철도 직원들과 러시아 이주민들이 주로 살았던 거리로 러시아 조차지와 동청철도 관리와 관련된 다르니 시정청, 동청윤선회사, 동청철도 관리 회사 등 건물들이 남아 있었다. 다만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러시아 거리 자체의 인상은 유적지라기보다 러시아 테마 파크와 가까웠고 아무래도 개항장이라는 비슷한 탄생 배경이 있어서 그런지 인천 차이나

www.kci.go.kr

타운과도 느낌이 비슷하였다. 솔직히 말하자면 규모 면이나 유적의 보존 수준에서 인천의 차이나타운 쪽이 나았다.

러시아는 대련을 발판으로 만주와 동아시아 해양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꿈을 꾸었지만, 러시아의 웅대한 꿈은 얼마 가지 못하여 산산조각 나게 되었다. 바로 러일전쟁에서 일본에게 패배하면서 요동반도와 남만주 지역의 영향력을 상실하였다. 러시아를 대신하여 남만주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보한 일본 역시 대련을 자신들의 만주 진출 교두보로 삼게 되었다. 이에 대련 역시 일본에 의해 또다시 새롭게 탈바꿈하게 되었다.

2. 일본의 만주 식민 정책의 실험장이 된 대련

러시아 거리를 둘러 본 답사단은 먼저 만철부속 병원을 보고 걸어서 대련의 옛 중심지 중산광장으로 향했다. 러시아 거리에서 남쪽에 위치한 중산광장은 대련의 중심 원형 로타리로 일본 식민지 시기 형성된 여러 건축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본은 러일전쟁 이후 대련을 점령하고 러시아인 거주지 대신 이곳 중산광장을 중심으로 새롭게 대련 도시를 건설하였다. 러시아 거주지와 중산광장의 일본 거주지 사이에는 일본교(지금 명칭은 승리교)라는 다리로 구획을 나누었다.

대련의 일본인 거주 중심지였던 중산광장 주변에는 다양한 일본 식민지 건축물들이 있었다. 대련으로 들어온 일본인 여객들이 투숙하던 야마토 호텔, 대련의 치안을 관할하던 경찰서, 우편을 담당하던 대련 우체국, 일본의 식민지 경제 정책을 보조하던 동양척식회사 대련 지부, 조선은행 건물 등 서구풍의 일본 건물들이 건재하였다. 일본은 이 중산광장을 중심축으로 하여 대련의 도시를 방사형으로 조성하였는데, 이러한 대련 모델은 이후 일본이 만주 지역에 새롭게 건설하는 장춘 등에도 적용되었다. 중산광장 로터리를 거닐면서 들었던 인상은 마치 서울의 광화문 일대와 소공동, 명동 일대를 걷는 느낌이었다. 아무래도 서울이나 대련 모두 일본 식민지 시기 건설된 도시 양식이 잔존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들었으리라.

중산광장을 둘러본 후 답사단은 일본의 초기 만주 경영의 핵심이었던 남만주

www.kci.go.kr

철도주식회사, 소위 '만철' 관련 유적들을 찾았다. 남만주철도주식회사는 러일전쟁 후 일본이 러시아로부터 동청철도의 남만주 지선의 부설권과 경영권을 획득한 후 1907년 이를 관할하기 위해 만든 국책회사라고 할 수 있다. 만철은 단순히 남만주 철도 교통을 관리한 기구가 아니라 관동군과 함께 일본의 만주 식민 지배 기반을 마련하는 실질적인 '총독부'와 같은 기구였다. 일본은 여순에 관동군을 주둔시키 대련에 남만주철도회사를 설치하여 만주 식민지화의 교두보를 마련하였다.



[그림 2] 대련 만철조사부 도서관

초대 남만주철도주식회사 총재였던 고토 신페이는 만철의 역할을 '문장적 무비', 즉 무력 지배를 문화로 포장한다고 표현하였다. 이러한 정책적 목적에 따라 만철은 대련에 다양한 문화, 사회 시설을 세웠는데 그것을 잘 보여주는 시설물이 만철부속병원과 만철조사부였다. 만철부속병원은 당시 동아시아 최대 규모의 근대식 병원이었다. 현재도 그 거대한 규모의 건물들이 잘 남아 있어서 당시 병원의

www.kci.go.kr

위상을 잘 보여주고 있었다. 다만 만철부속병원의 화려한 모습 뒤에는 일본 군국주의의 그림자가 있으니, 이 병원에서 진행된 다양한 의학 연구들이 이후 하얼빈의 731부대의 다양한 생체실험의 기초가 되었다는 점이다. 현재 만철부속병원의 건물들은 대련대학 의과대학 건물로 이용되고 있는데 건물들 앞에는 흥미롭게도 중국 고대 의학의 성인이라 불리는 화타의 동상과 캐나다인으로서 1930년대 중국에서 살신성인의 의사 영웅으로 알려진 노먼 베쑨의 동상이 서 있었다. 일본의 제국주의 의학의 상징적 공간이 현재는 중국 현대 의학의 산실과 같은 공간이 되었다.

개인적으로 만철 관련 유적지에서 관심있게 보았던 곳은 지금의 대련도서관 건물로 이용되고 있는 만철조사부 도서관 건물이었다. 만철조사부는 일본이 만주 지역 식민지를 경영할 때 필요한 다양한 자료, 만주의 지리, 자연, 역사, 문화, 인구 등의 다양한 데이터를 조사, 정리하는 부서로, 이곳에서 많은 일본의 지식인들이 연구활동을 하며 만철조사부에서 근무한 이들 중 다수는 이후 일본의 학술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일본의 만철 연구자 고바야시 히데오가 비유한 것처럼 '일본 제국의 싱크탱크'라고 할 수 있었다.

만철조사부 도서관 건물은 전면은 고전주의식 그리스 양식 기둥과 지붕으로 구성되었고 뒷면은 붉은 벽돌로 만들어졌다. 만주 근현대사를 전공하는 필자로서는 좋든 싫든 만철조사부에서 생산한 방대하고 다양한 만주 관련 자료들을 살펴봐야 한다. 일본 제국의 싱크탱크라고 하기에는 생각보다 도서관 규모가 작아 적잖이 놀랐지만 이곳에서 필자가 자주 보는 만주 관련 자료들이 정리, 생산되었다는 점에서 연구자로서 감회가 새로웠다. 한편으로는 이 작은 도서관과 조사부 건물에서 일본의 만주 식민지 경영 청사진이 나왔다고 하니, 제국주의, 군국주의에 끼치는 학문의 영향력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다.

만철 관련 유적지를 둘러본 답사단은 최근 베네치아의 풍광을 본따서 새롭게 조성된 대련의 '핫플레이스'인 '동방수성'과 그 앞에 펼쳐진 대련 해변가를 거닐었다. 대련 앞바다는 그동안 격변했던 대련의 근현대사와는 다르게 잔잔한 편이었다. 답사단은 이어 저녁을 먹고 대련북역에서 고속철도를 타고 다음 목적지인

www.kci.go.kr

심양으로 향했다.

Ⅲ. 심양: 청대부터 근현대까지 만주의 정치 중심

1. 만주인과 청나라의 중심지 심양

2026년 6월 29일 저녁 8시 경 대련을 출발한 고속열차는 남만주철도 라인을 따라 2시간 만에 심양에 도착하였다. 밤늦게 심양에 도착했기 때문에 심양 답사는 다음 날부터 이뤄졌다.

심양은 대련이나 장춘과는 다르게 19세기 전부터 만주 지역의 중심이었던 유서 깊은 도시이다. 고대부터 만주 지역의 정치적 중심지는 심양 남쪽의 요양이었다. 요양에는 한대부터 요동군의 치소가 설치되었고 고구려의 요동성이 있었고 명대에는 요동도사가 있었다. 그러던 것이 후금의 누르하치가 심양에 수도를 두면서 청대를 거쳐서 지금까지 만주 지역의 정치, 군사 중심지가 되었다. 청대 심양은 한자로는 '성경' 혹은 봉천, 만주어로는 '묵던'으로 불리면서 1644년 이후의 청의 공식 수도 북경과 함께 매우 중요한 도시였다.

심양이라는 공간은 한국사와도 매우 깊은 관련이 있는 공간이다. 고려 후기 몽골제국의 침입 당시 몽골제국에 투항한 고려인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였고 고려 충선왕은 이 지역을 봉읍으로 하여 몽골로부터 심양왕으로 책봉받았다. 병자호란 때는 소현세자, 봉림대군 뿐만 아니라 많은 조선인 피로인들이 심양으로 끌려왔다. 최근에는 심양의 서탑 거리에 많은 조선족과 사업차 온 한국인들이 모여들어서 한인 타운을 이뤘다.

www.kci.go.kr



[그림 3] 심양고궁의 대정전과 영복궁 내부

심양 거리의 인상은 대련이나 장춘과는 사뭇 달랐다. 대련과 장춘의 경우 근현대 러시아와 일본이 계획적으로 건설한 도시였기 때문에 도시 구획도 반듯하고 정갈한 느낌이 강했다. 반면 심양의 경우는 적어도 청대부터 건설된 오래된 도시였기 때문에 도시 구획도 다소 어지럽고 동북의 행정 중심이기 때문에 사람들로 많이 붐볐다. 좋게 말하면 대련과 장춘보다는 '빈티지'하고 인간미가 있는 도시였

www.kci.go.kr

다. 우리 답사단의 심양 일정은 장작림-장학량 원수부-심양고궁-9.18 만주사변 기념관-북릉공원-서탑 거리였지만 이 답사기에서는 시대순으로 답사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심양을 역사의 중심지로 끌어올린 것은 청을 건국한 누르하치와 그의 아들 홍타이지이다. 누르하치는 후금을 건국하는 과정에서 그의 거점을 여러 차례 바꾸었는데 1625년 최종적으로 심양을 수도로 삼고 지금의 심양고궁을 건설하였다. 이후 그의 아들 태종 홍타이지가 뒤를 이어 만주와 내몽골을 통합하는 제국을 건설하면서 심양고궁 역시 서쪽으로 증축되었고 청이 수도를 북경으로 옮긴 뒤에도 심양고궁은 청 황실의 중요한 궁궐로 인식되었고 건륭제가 다시 한번 서쪽으로 증축하여 지금의 규모를 갖추게 되었다.

심양고궁은 북경의 자금성에 비해 규모가 작았지만 만주인들의 문화 양식을 잘 보여주는 건축물들이 많이 남아 있는 특색있는 궁궐이었다. 가장 동쪽에 위치한 대정전과 십왕정은 누르하치 시기에 지어진 건물로 누르하치와 '버일러'라고 불리는 만주 왕공들이 정사를 행하던 공간이었다. 대정전은 청 초기에는 전, 독공전으로 불리던 공간으로 유목민들의 게르 형식을 본딴 양식의 건물이다. 대정전 앞에는 십왕정이라는 건물군이 양쪽 5개씩 자리 잡았는데 10명의 만주 왕공들이 자리 잡고 정사를 논의하였다. 이것도 만주를 비롯한 내륙아시아 지역의 부족 연합 정치체제를 반영한 특수한 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심양고궁에서 만주인 특유의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지역은 홍타이지 시기 건설된 후궁 지역이다. 이 곳은 만주 궁중 여인들이 머무는 공간으로 황후가 머무는 청녕궁, 각 후궁들이 머무는 영복궁, 인지궁, 관저궁 등의 건물이 있다. 이 중에서 가장 역사적으로 중요한 공간이자 인기 있는 곳이 영복궁이다. 영복궁은 홍타이지의 몽골 코르친 부 출신 후궁이자 순치제의 생모, 강희제의 친할머니 효장문황후 붐부타이의 거처로, 붐부타이가 순치제를 낳은 공간이었다. 영복궁은 이러한 역사적 공간임에도 상당히 소박하였는데 주목할만한 것은 방 한켠에 구들장을 깔아서 부분 난방을 하는 '캉'이 있다는 점이다. 이 영복궁의 '캉'은 한반도와 온돌문화를 공유하는 만주인의 문화적 특색을 잘 보여주었다.

www.kci.go.kr

심양이 청 제국의 중심지였음을 잘 보여주는 공간은 바로 홍타이지의 능이 있는 북릉공원이었다. 홍타이지의 능은 소릉이라고도 하고 심양의 북쪽에 있다고 하여 북릉이라고도 한다. 홍타이지는 한국사에서는 조선에 '삼전도'의 굴욕을 안긴 원수 같은 인물이지만, 청조와 만주인 입장에서는 청을 만주, 몽골, 한인을 아우르는 유라시아의 다원적 제국으로 만들고 청이 중원을 장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영웅이라고 할 수 있다. 청의 실질적인 건국자의 능묘답게 소릉의 규모는 상당히 웅장하였고 특히 능을 보호하기 위해 둘러싼 벽돌 성벽이 그 위용을 더하였다. 만주인에게 있어 홍타이지가 어떤 위상을 가진 사람인지 여실히 보여주는 공간이었다.

심양에서 청 제국의 흔적을 잘 보여주는 또 다른 공간은 심양 서쪽에 있는 서탑 거리였다. 청은 홍타이지 시기부터 몽골의 여러 부락을 복속시키기 위해서 당시 그들이 신봉한 티베트 불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심양성에도 동서남북으로 티베트 불교 양식의 호리병 모양의 탑을 만들어서 청 제국이 부처의 보호를 받는 신성한 공간으로 보이게 하였다. 서탑 역시 그 목적으로 지어진 심양 서쪽에 지어진 탑으로 생각보다 상당히 거대한 하얀색 탑이었다. 서탑이라는 건축물도 몽골, 티베트 등 내륙아시아와 문화적으로 가까운 만주인의 청 제국의 특수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였다.

이와 같이 심양은 만주인의 청 왕조에 있어서 수도 북경에 버금가는 정치적으로 중요한 공간이었고 만주인의 정체성이 녹아 있는 상징적인 공간이었다. 하지만 19세기 중엽 만주인의 청 제국은 점차 붕괴되었고 만주 지역은 제국주의 열강의 경쟁의 장이 되었다. 만주인의 신성한 정신적 수도 심양 역시 근현대의 소용돌이에서 급변하기 시작하였다.

2. 심양의 격동적인 근현대사-장작림-장학량 고거와 9.18 사변 기념관

19세기 중엽 만주는 대내외적으로 소용돌이에 빠진다. 청의 만주 봉금정책이 무너지면서 중원의 한인들이 대거 만주 지역에 정착하게 되었고 러시아와 일본 등 여러 제국주의 국가들이 만주로 진출하였다. 이에 따라 심양 역시 소용돌이의

www.kci.go.kr

한복판에 들어서게 되는데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의 주요 전장이 되었고 만주사변의 시작점이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심양의 격동적인 근현대사를 잘 보여주는 공간이 장작림-장학량 부자의 고거와 9.18 사변 기념관이었다.

장작림-장학량 고거는 1910~1920년 동북 지역에 실질적으로 왕처럼 군림했던 군벌 장작림과 장학량 부자가 기거했던 공간이다. 장작림은 19세기 말 만주로 이주한 한인 농민 출신으로 젊은 시절 마적으로 전전하다가 1911년 신해혁명으로 청이 멸망하고 만주 지역의 정세가 혼란한 틈을 타서 봉천을 기반으로 군벌 세력으로 성장하였다. 그가 만주의 최대 군벌로 성장한 배후에는 일본의 지원이 있었는데 만주를 중원에서 분리시키려는 일본의 정책과 그의 행보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었다. 다만 장작림은 만주의 패권을 잡은 이후 일본의 방향과는 다른 독자노선을 걸으면서 중원으로 들어가 북경까지 함락하고 화북 지역의 패권을 노렸으나 1928년 일본 관동군의 공작으로 열차를 타고 심양 근처 황고둔을 지나는 도중 폭사하였다.

장작림의 아들 장학량은 아버지의 권력을 이어받고 일본에 대항하는 길을 걸었다. 당시 중국 본토에서는 장개석의 국민정부가 중원 지역의 군벌들을 각개격파하며 북상하고 있었는데 장학량은 국민정부에 호응하여 만주 지역의 깃발을 국민당의 청천백일기로 내거는 '동북역치'를 단행하였다. 하지만 장학량의 저항도 얼마 못가 일본의 만주사변으로 분쇄되었고 일본에 대패한 장학량은 중국 본토로 건너가서 국민정부의 장개석 휘하에서 항일 전쟁을 수행하였다. 장학량은 항일전쟁 과정에서 중국공산당에 대한 장개석의 강경 노선에 불만을 품고 서안에서 쿠데타를 일으켜 장개석을 납치, 압박하여 국공합작을 이끌어냈다. 다만 국공합작 이후 권력을 회복한 장개석에 의해 구금되었고 1949년 장개석 정권과 함께 대만으로 건너가 1993년까지 '유폐'되었다가 이후 미국으로 망명하여 2001년 하와이에서 101세로 사망하였다. 장작림, 장학량 부자는 만주의 근현대사 뿐만 아니라 중국 근현대사의 격랑 한복판에 있었던 풍운아라고 할 수 있다. 그들 가족의 일대기는 〈대부〉보다 훨씬 드라마틱 하다.

장작림-장학량 부자의 고거는 단순한 저택이 아니라 이곳에서 만주 근현대사

www.kci.go.kr

의 중대사가 결정된 정치 중심지였다. 청대 왕부를 개조하여 만든 저택은 청대 심양고궁보다는 당연히 규모가 작지만 한때 '동북왕'으로 군림하던 자의 거처답게 제법 규모가 크고 화려하였다. 전통 중국 화북 지역의 저택 양식인 사합원과 서구 양식이 결합된 형태인데 그 중 서양 바로크 양식 건물인 대청루는 그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건륭제 시기 베르사유 궁전을 본따서 북경 원명원에 지어진 서양루나 한국 덕수궁의 석조전보다는 규모가 작지만 장씨 부자의 위상을 보여주기에는 충분하였다.



[그림 4] 장작림-장학량 고거의 대청루

그다음 9.18 사변 기념관은 일본의 만주사변을 알리고 규탄하는 목적의 기념관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은 1928년 만주의 군벌 장작림을 제거하고 만주를 실질적으로 장악하려는 의도를 본격적으로 드러냈다. 장학량이 국민당과 연계하여 일본에 저항하는 움직임을 드러내자 일본 관동군은 1931년 9월 18일 심양 근처 유

www.kci.go.kr

조호의 철로를 고의적으로 폭파시키고 이어서 심양의 장학량 군대를 공격하면서 만주 점령을 개시하였다. 이후 1932년 일본은 만주 전역을 함락하고 청의 마지막 황제 푸이를 내세워 만주국을 세웠다. 이 사건을 만주사변, 중국에서는 9.18 사변이라고 하며 일본의 중국 침략의 시작점이라고 보고 있다.

9.18 사변 기념관은 단순히 만주 사변의 과정을 드러내는 기념관이 아니라 청일전쟁부터 1945년 일본의 패망까지 일본의 군국주의를 고발하고 중국의 항일 역사 의식을 드러내는 항일 기념관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중국은 1937년 중일전쟁을 항일의 기점으로 잡지 않고 1931년 만주사변을 기점으로 잡아서 14년 항일이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 이는 중화인민공화국이 항일 정신의 정통성을 강화하면서 '만주사변' 강조를 통해서 중국 동북 3성에 대한 영유권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본다. 이에 따라 심양 9.18 사변 기념관의 위상도 강조되었다.

답사단이 심양에 도착할 때 쯤 중국 각지에는 중국공산당 창당 기념행사로 애국적인 분위기가 가득하였다. 9.18 사변 기념관 역시 예외는 아니어서 기념관은 오성홍기를 든 중국인 관람객들로 가득했다. 더군다나 최근 대만 문제 등으로 중국과 일본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이곳은 '항일'의 하나의 성지로서 더욱 주목을 받는 것 같았다. 9.18 사변 기념관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기념관 구경을 마치고 나와서 마주친 한 장면이었다.

중국의 기념관, 박물관 말미에는 대체로 중국공산당의 혁명 정신, 최근 시진핑 사상을 강조하는 파트가 있는데 9.18 사변 기념관에도 말미에 중국공산당의 항일 혁명 정신과 시진핑 영도 사상을 강조하는 부분이 있다. 그런데 한 단체관광 온 중국인 관광객들이 단체로 그 파트 부분에 서서 중국공산당의 혁명 정신을 큰 소리로 읽어 내려가는 것이었다. 여기가 중국임을 다시 한번 깨달은 순간이었고 현대 중국이 어떻게 항일의 유산을 활용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 인상 깊었다.

심양 일정을 모두 마친 답사팀은 다시 심양에서 고속열차를 타고 장춘으로 향했다. 만주사변 이후 심양은 만주의 중심지 지위를 잃게 되었다. 일본은 만주국을 건설하면서 만주에 새로운 중심 도시를 건설하려고 했는데 그 도시가 바로 장춘

www.kci.go.kr

이었다. 일본이 구상했던 만주국과 그 수도 장춘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Ⅳ. 장춘: 만주국 미완의 도시 프로젝트

1. 마지막 황제의 화려한 감옥, 장춘의 만주국 황궁

2026년 7월 1일, 답사 3일차 답사단은 3번째 도시 장춘을 둘러보았다. 장춘은 현재 길림성의 성도로 인구 900만에 육박하는 대도시이지만 17세기까지만 하더라도 몽골 부락 중 하나인 고를로스 부락의 유목지였다. 그런데 청대 중반기부터 점차 한인 농민들이 이주하여 이곳을 개간하면서 옹정제 시기 한인들을 관리하기 위해 이곳에 장춘부라는 행정 기관을 설치하였다. 이것이 장춘이라는 지명의 시작이었다.

장춘이 본격적으로 도시로 발달되기 시작한 것은 역시 동청철도와 남만주철도가 부설되면서부터이다. 1905년 장춘 지역에는 관성자 역이 설립되었는데 러시아가 부설한 동청철도와 일본이 부설한 남만주 철도가 만나는 교차점이 되었다. 이후 장춘은 만주 철로 교통의 중심지로 부상하였고 일본에 의해 근대 도시로 발전하게 되었다.

장춘이 동북아시아의 중요한 정치 중심이 된 것은 1932년 만주국이 성립되면서부터이다. 일본은 만주국을 성립시킨 후 장춘을 '신경(新京)'으로 개칭하고 만주국의 '새로운 수도'에 걸맞게 장춘의 도시 구획을 새롭게 설계하였다. 만주국은 대체로 일본의 '괴뢰국가', 중국에서는 '위만주국'이라고 불리며 국가의 정통성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되었지만 최근에는 동아시아 근대 국가 체제의 실험장으로 평가되며 1945년 이후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현대 국민국가 체제와 경제 등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재평가되고 있다. 한국의 현대사 측면에서도 박정희 등 많은 한국의 정치가, 군인, 지식인들이 만주국의 경험을 갖고 대한민국의 국가 체제 건설에 적용하려 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www.kci.go.kr





[그림 5] 만주국 황궁 근민전과 그 내부의 푸이의 개인 불당

만주국의 신경, 장춘에서 답사단이 가장 먼저 찾은 공간은 청의 마지막 황제이자 만주국의 황제 푸이가 거처하던 만주국의 황궁, '위만황궁' 유지이다. 청의 마

www.kci.go.kr

지막 황제이자 만주국의 황제를 거쳐 소련의 전쟁 포로, 최후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공민이자 정원사로 살았던 푸이의 파란만장한 삶은 그의 자서전 〈나의 전반생〉이나 그 자서전을 바탕으로 이탈리아 감독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가 1987년 제작한 영화 〈마지막 황제〉에 잘 나타나 있다. 장춘 만주국 황궁도 영화의 배경으로 실제로 활용되었다. 만주국 황궁은 심양의 장작림-장학량 부자의 거처보다는 규모가 컸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비슷했고 한국의 덕수궁과도 풍기는 분위기가 비슷하였다. 일본에 의해 꼭두각시처럼 말년을 보내야 했던 순종이나 푸이의 삶이 오버랩되었기 때문인 것 같다.

만주국 황궁의 중심 공간은 동덕전과 근민전이라고 할 수 있다. 동덕전은 푸이의 유흥 공간으로 외국 사절들을 위해 대연회를 베풀거나 영화, 여러 오락을 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동덕전에서 인상 깊었던 곳은 당시로서는 최신의 스크린 시설이 설치된 푸이의 개인 '홈씨어터'였다. 공간이 매우 크고 화려했지만 명색이 '만주국 황제'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공간에서 허수아비처럼 영화를 보고 오락만 즐겨야 했을 푸이의 삶에 다소 동정심도 들었다. 물론 그가 일본에 협력하여 만주국의 형식적 지도자가 되고 만주국과 일본의 여러 전쟁 범죄를 묵인, 동조한 선택은 명백한 죄이지만 말이다.

근민전은 푸이의 실질적 생활 공간이자 집무 공간이다. 내부에 나무가 심어진 서양식 중정이 퍽 인상적인 공간이었다. 이곳에서는 '일만의정서' 체결 등 만주국의 정책이 푸이의 결재 아래 결정되었고 셋째 부인과의 이혼, 첫째 부인 완룽의 아편 중독 등 푸이의 개인사에서도 굵직한 일들이 일어난 곳이다. 개인적으로 근민전에서 인상 깊었던 공간은 2층 한쪽에 마련된 푸이의 개인 불당이었다. 서구식 건물과는 이질적인 티베트식 불상들이 자리잡고 있었다. 아마 만주국 황제로서 서구식으로 머리를 깎고 서구식 복장을 입었지만 한편으로는 만주인이면서 청의 황제라는 정체성을 지키고 싶어했던 푸이의 안식처가 아니었을까.

만주국 황궁은 화려한 감옥, 인형의 집 같은 공간이었다. 그 인형의 집에 거주한 푸이는 형식적인 지도자일 뿐이지, 실질적인 만주국의 운영은 일본인 군인, 관료, 일본에 의해 선택된 중국인, 몽골인, 조선인 관료들이었다. 그렇다면 그들

www.kci.go.kr

은 만주국을 어떻게 운영하고자 했는가, 그 흔적을 찾아 답사단은 장춘의 다음 목적지로 향했다.

2. 만주국의 신경 장춘, 만주국의 '미완의' 근대국가 실험 프로젝트

만주국 황궁을 나온 답사단은 장춘역 일대와 야마토 호텔, 즉 지금의 춘의빈관 일대를 보고 만영영화제작소 박물관을 찾았다. 장춘 역시 대련과 마찬가지로 일본 식민지 시기 계획적으로 개발된 도시라 거리가 잘 구획된 느낌이었고 만주국의 수도였기에 대련보다 도로의 폭이 훨씬 넓었다. 일본이 자신들의 이상적인 근대 도시를 이곳에 구현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다.

만영영화제작소는 만주국 산하 국책 영화제작 기업인 만주영화협회의 영화제작소가 있던 곳이다. 최근 들어 국내, 외 학계에서 만주국의 '이미지' 정치, 선전 공작 정치에 대해서도 많이 연구가 되면서 '만영'과 만영에서 제작한 영상물도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되고 있다. 영화는 근대 국가, 특히 나치 독일 등 전체주의 국가에서 중요한 대중 동원의 수단으로 이용되었고 만주국과 일본 역시 영화를 자신들의 프로파간다에 적극 활용하였다.



[그림 6] 만주국 시기 영화 포스터

www.kci.go.kr

만영의 유산은 중화인민공화국에도 계승되어 신중국 성립 후 만영영화제작소는 장춘영화제작소로 개칭되어 현대 중국의 영화를 제작하는 공간이 되었다. 현재 만영영화제작소 박물관 역시 만영에 대한 서사보다는 신중국 성립 이후의 중국 영화 제작의 역사를 주로 다루고 있었다.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장춘영화제작소에서 만들어진 영화는 대체로 항일전쟁, 한국전쟁 등에서의 중국공산당의 '분전'이나 몽골이나 중국 서남부의 소수민족과 공산당 간의 우호 관계 등 사회주의 색체가 강한 영화들이 다수 제작되었다. 소련이나 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영화를 통한 혁명 정신 선전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만영의 잔재들은 사회주의 신중국의 선전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만영영화제작소를 관람한 후 답사단은 만주국의 중추 기관들이 몰려 있는 신민대가로 향했다. 신민대가는 '팔대부가'라고도 하는데, 만주국의 8개 중요 부서가 모여 있는 거리라는 의미이다. 서울로 따지면 세종대로와 비슷한 곳인데 신민대가의 양쪽으로는 국무원, 군사부, 사법부, 교통부, 종합법원, 민생부, 흥농부, 외교부 건물이 위치해 있고 신민대가 끝에는 현재는 길림대학 지질학부 건물로 이용된 푸이의 새 황궁 건물 유지가 있었다. 어떻게 보면 만주국의 실질적인 운용과 1930~40년대 일본의 만주 경영이 이 팔대부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셈이었다.

만주국의 팔대부가에서 인상 깊었던 곳은 푸이의 새 황궁터였다. 팔대부가 가장 북쪽 끝 넓은 광장과 중국식 기와와 서구식 본체를 갖춘 웅장한 건물 한 채가 있는데 푸이가 원래 거처한 황궁이 좁아서 1940년대 이곳에 새롭게 황궁을 조성하고자 했는데 태평양전쟁과 일본의 패망으로 완공을 보지 못했다고 한다. 푸이의 새 황궁 앞에 드넓게 펼쳐진 황량한 광장이 어쩌면 '왕도낙토', '오족협화'라는 미명 하에 일본 군국주의가 야심차게 설계한 '만주국'이라는 근대 국가 프로젝트의 허상과 허망한 결과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았다.

마지막으로 장춘에서 답사단이 들른 곳은 '만선일보' 옛 자리였다. '만선일보'는 만주국에서 간행된 한글 신문으로 이 언론사에 많은 조선의 문인들이 참여했다고 한다. 만주국은 식민지 조선인 지식인과 청년들에게는 출세와 기회의 장이기도 했고 여러 지식과 감상을 교류한 장이기도 하였다. '만선일보'도 그러한 조

www.kci.go.kr

선 지식인들의 교류의 장이 되기도 하였고 백석 등 조선 문인들이 만선일보사 건물에 모여 단체사진을 찍었다. 우리 답사단도 만주에서 각자의 생각을 펼치고 교류했을 조선 지식인들을 상상하며 지금은 은행이 들어선 만선일보 건물 앞에서 단체사진을 찍는 것으로 장춘에서의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그림 7] 만선일보사 앞 조선 문인들과 현재 그 자리에서 우리 답사단

www.kci.go.kr

V. 하얼빈: 동방의 모스크바의 화려함 속 그늘과 한국인의 흔적

1. 동청철도가 낳은 동방의 모스크바 하얼빈, 그리고 그 그늘

2026년 7월 2일 답사단은 일정 마지막 도시인 하얼빈에서의 일정을 시작하였다. 하얼빈 일정은 이틀이었는데 첫째 날은 731부대 전시관-하얼빈맥주 박물관-흑룡강성박물관-안중근 의사 기념관-조린공원-성 소피아 성당-중화 바로크 거리-중앙대가 일정이었고 둘째 날 일정은 송화강 철교 및 중동철도 박물관-정율성 기념관이었다. 본 기행문에서는 주제별로 하얼빈 도시의 형성과 역사를 서술하고 하얼빈에서의 한국인의 흔적에 대해 서술하면서 마무리하겠다.

하얼빈은 송화강가에 있는 도시로 여진이 세운 금나라 때는 상경 회령부가 있던 곳이었다. 그러나 금나라가 몽골제국에 멸망하면서 이곳은 송화강의 한적한 어촌마을로 남아 그 상태가 19세기까지 유지되었다. '하얼빈'이라는 이름 역시 여진어, 혹은 만주어로 '그물을 말리는 곳'이라는 의미의 '하르빈(harbin)'에서 유래되었다.

그물을 말리던 송화강의 한적한 어촌에 불과하던 하얼빈이 상전벽해의 근대도시로 탈바꿈한 것은 1898년 러시아가 동청철도를 부설하면서부터이다. 하얼빈은 만저우리에서부터 시작하는 동청철도와 대련에서 시작하는 남만주 철도가 만나는 교차점이 되면서 철로 교통의 요충지로 탈바꿈하였다. 그와 함께 시베리아에서는 러시아인들이 중원에서는 한인 노동자들이 열차를 타고 하얼빈으로 몰려들었다. 하얼빈은 이러한 과정에서 동방의 모스크바 혹은 동방의 파리로 발돋움하였다.

하얼빈은 대련과 마찬가지로 러시아에 의해 세워졌고 1920년대까지 러시아의 영향권 하에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러시아의 분위기가 강하게 풍겼다. 러시아인들이 주로 거주한 중앙대가와 성 소피아 성당 일대는 이곳이 중국이라기보다는 러시아의 한 도시라는 느낌이 강했다. 하얼빈에서의 러시아 문화의 영향과 그 역사적 흐름을 잘 보여주는 곳이 흑룡강성 박물관이었다. 흑룡강성 박물관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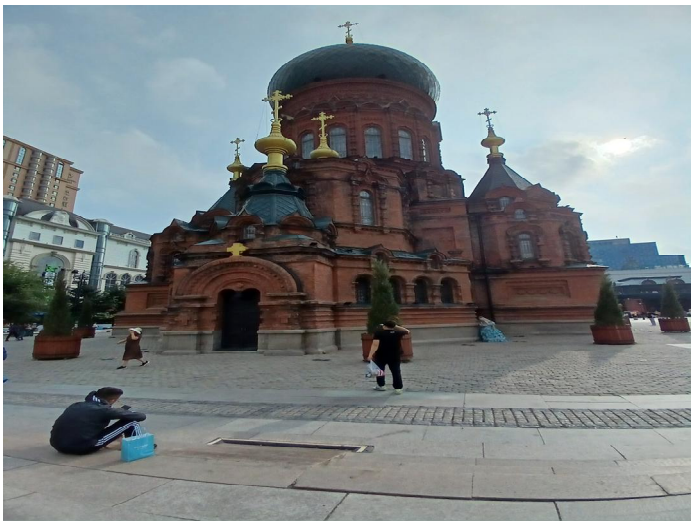
www.kci.go.kr

1900년대 러시아인들이 만주 일대의 여러 동식물들의 표본을 수집하여 만든 자연사 박물관에서 시작한 박물관으로 하얼빈 시의 역사와 그 속의 러시아 문화를 주로 보여주는 테마 박물관에 가까웠다. 중국의 여느 박물관에 비해 크기도 작고 전통시대 유물도 거의 전시되지 않아서 처음에는 실망스러웠지만 보면 볼 수록 하얼빈의 다원적인 역사와 문화를 엿볼 수 있어서 나름 괜찮았다.

개인적으로 하얼빈에서 가장 인상 깊게 본 곳은 중앙대가 동쪽에 위치한 중화-바로크 거리였다. 중앙대가 일대가 러시아인들의 거리였다면 중화-바로크 거리는 중국인들의 거주지였다. 주로 산동과 산서의 사람들이 철도를 타고 이곳에 대거 정착하여 하얼빈의 '차이나타운'을 만들었다. 중앙대가나 성 소피아 성당도 인상 깊었지만, 워낙 하얼빈이 러시아풍의 도시이다 보니 오히려 중국풍의 거리가 훨씬 뇌리에 많이 남았다. 중국식 패방과 대형 관우상은 이곳의 주인은 중국인이라는 것을 여실히 드러냈고 중국의 전통 주택인 벽돌로 만든 사합원과 러시아식의 건물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거리의 독특함을 한껏 뽐냈다. 어떻게 보면 러시아인이 시작한 근대 하얼빈의 역사에서 중국인들은 처음에는 손님같은 존재였지만 자신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견지하면서 도시의 새로운 주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얼빈은 음식 문화에서도 서구와 중화의 문화 접변을 잘 보여주는 공간이었다. 대표적인 음식이 꿔바로우와 하얼빈 맥주이다. 꿔바로우는 한국인들에게도 친숙한 중국식 돼지고기 튀김에 러시아식 탕초 소스를 얹은 요리로 1900년대 초 정흥문이라는 중국인 요리사가 러시아인을 접대하기 위해 만든 음식이다. 바삭한 튀김과 향긋한 탕초 소스의 어우러짐이 일품이다. 하얼빈 맥주는 마찬가지로 1900년대 초 러시아의 맥주 양조 기술이 하얼빈으로 전파되어 생산된 맥주로 그 명맥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산동의 칭다오 맥주와 함께 중국을 대표하는 맥주 브랜드로 성장하였다. 이번 답사에서는 최초의 꿔바로우 식당인 '노주가'는 못 가보았지만, 두 차례 정도 꿔바로우 요리를 먹을 수 있었고 하얼빈 맥주 박물관에서 하얼빈 맥주의 역사를 살피고 맥주를 시음할 기회가 있었다. 하얼빈의 꿔바로우를 맛보며 철도가 낳은 동아시아의 문화 접변을 체험할 수 있었다.

www.kci.go.kr



[그림 8] 하얼빈 성 소피아 성당

하얼빈 도시의 화려함 그 이면에는 근대의 심각한 부작용이 낳은 그림자도 존재하였으니 바로 하얼빈 시 남쪽 외곽 핑팡에 위치한 731부대 유지 전시관이었다. 731부대는 중일전쟁과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이 급수 문제를 연구한다는 목적으로 각종 생체실험과 생화학무기 실험 등 반인륜적인 전쟁 범죄를 저지른 공간으로 '마루타'로 한국인들에게도 악명 높다. 731부대 기념관은 일본이 저지른 다양한 생체실험의 면모와 그 결과물들을 여과 없이 보여주었다. 또한 그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일본 천황을 정점으로 한 일본 관료와 군대 조직 전체 뿐만 아니라 일본의 생체실험 '범죄 은폐'를 묵인한 미국에게도 분명히 묻고 있었다. 731부대 역사에 대한 현대 중국의 입장을 잘 드러내고 있었다.

731부대의 비극도 어쩌면 철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731부대도 부대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보급 물자와 군인, 관리, '실험대상' 수송을 위해 철로와 연결이 되었다. 731부대 부지는 일본이 패망 전에 그들의 행위를 은폐하고자 모두 초토화하였는데 그 와중에 살아남은 것이 한 쌍의 보일러탑과 그 옆을 지나가는 철로였다. 어쩌면 이 철로를 통해서 여러 조선인을 포함한 일본에

www.kci.go.kr

의해 '마루타'가 된 희생자들이 731부대로 끌려왔을 수도 있겠다 싶었다. 철도는 하얼빈을 동방의 모스크바로도 만들었지만 동아시아에서 가장 잔혹한 전쟁 범죄의 현장으로도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9] 하얼빈 731 부대 전시관 및 그 내부 전시

www.kci.go.kr

2. 안중근, 이효석, 정율성-하얼빈에 있는 한국인의 흔적들

만주의 철도는 제국주의의 산물로 건조되었지만 식민지 조선인들에게 한반도와 대륙을 오갈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한반도와는 거리가 꽤 멀 것 같은 이 하얼빈에도 한반도의 많은 사람들이 철도를 타고 왔고 하얼빈에는 곳곳에 한국인들의 흔적들이 남아 있다. 이 기행문의 마지막은 하얼빈에 있는 한국인의 흔적들을 정리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다.

'하얼빈'하면 한국인들의 뇌리에 바로 떠오르는 인물이 바로 안중근 의사이다.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격살한 사건은 만주의 철도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러 하얼빈에 타고 왔던 수단도 동청철도였고 이토 히로부미가 러시아 재무장관과 조선의 식민통치를 인정받고자 하얼빈에 오기 위해 이용한 것도 남만주 철도였다. 또한 1909년 10월 26일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곳도 하얼빈 철도역이었고 안중근이 체포되어 여순 감옥에 수감될 때 이용한 것도 남만주 철도였다. 이렇게 보면 안중근 의거에서 만주 지역의 철도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볼 수 있다.



www.kci.go.kr



[그림 10] 조린공원 안중근 유묵 '청초당' 비석과 정율성 기념관 내부

하얼빈에는 안중근 의거와 관련된 장소가 많다. 그 중에 우리 답사단이 간 곳은 하얼빈 역에 위치한 안중근 의사 기념관과 안중근 의사가 동지들과 단지 동맹을 하고 결의를 다졌던 조린공원이었다. 안중근 의사 기념관은 그 규모는 작지만 안중근의 일대기와 그의 의거가 가지는 의미를 한국어로도 잘 정리해 두었고 기념관 한 쪽 벽에 유리를 설치하여 안중근의 의거가 일어났던 역 플랫폼을 직접 참관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조린공원에는 안중근 의사가 거사 전 동지들과 마음을 다졌던 조그마한 목재 다리와 안중근의 유묵인 '청초당(青草塘: 푸른 풀이 우거진 못)'이 새겨진 바위가 서 있었다. 푸르른 풀처럼 거사 앞에 한치 흔들림 없이 꼿꼿했던 안중근의 기개와 잘 어울리는 글씨였다.

하얼빈에 흔적을 남긴 또 한 명의 한국인은 '메밀꽃 필 무렵'의 저자로 잘 알려진 이효석이다. 개인적으로 문학에는 문외한이라 이효석하면 평창만 떠올렸지, 이효석이 하얼빈과 관련이 깊은 인물인 것은 이번 답사를 통해 처음 알았다. 이효석은 1939년과 1940년 두 차례 하얼빈을 여행하였고 이때의 견문을 바탕으로 〈벽공무한〉과 〈하얼빈〉이라는 소설을 썼다. 특히 〈하얼빈〉에는 하얼빈 중앙대가와 송화강 부두의 이국적인 풍경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다. 이효석이 머물렀다는

www.kci.go.kr

중앙대가의 모데른(모던) 호텔도 지금까지 존재하는데 답사단이 갔을 때는 리모델링 공사 중이라 그 풍취를 제대로 느낄 수 없었다. 다만 저녁의 불빛이 화려한 중앙대가를 거닐면서 이효석이 하얼빈에 와서 느꼈을 이국적 감정을 상상해 본 것만으로 만족하였다.

마지막으로 하얼빈에 그 흔적이 있는 한국인은 정율성이다. 정율성은 그 행적으로 대한민국에서도 논란이 많은 문제의 인물이다. 그는 1914년 당시 전라남도 광주에서 태어나 의열단 가입을 위해 중국으로 건너가서 중국공산당에 입당하였다. 이후 중국공산당원으로 항일 투쟁을 하면서 다양한 군가를 작곡했는데 그중 1939년 작곡한 '팔로군 행진곡'은 현재 중국인민해방군의 대표적 군가가 되었다. 해방 이후 그는 북한 정권의 수립에도 깊이 개입하였고 6.25 전쟁 중 중국으로 귀환하여 중국공산당과 모택동에 복무하는 음악을 다수 작곡하였다. 정율성의 이러한 행적, 특히 중국공산당과 북한 정권에 깊이 협력한 이력 때문에 몇 년 전 그의 고향 광주에서 기념공원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정치권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다. 중국에서는 그의 행적을 기리기 위해 정율성 기념관을 하얼빈에 만들었다.

동아시아의 역사를 연구하는 역사학도로서 정율성의 일생은 상당히 '트랜스내셔널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흥미로운 연구 대상이다. 다만 냉전의 구도 속에서 만들어진 대한민국의 현 체제에서 정율성의 행적을 마냥 정치적 색채를 떠나 평가하기도 힘든 것도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정율성은 현재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당연히 '인민 영웅'이라고 할 수 있지만 냉전 구도가 만들어 낸 한반도의 분단 현실이 해결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에서는 계속 '문제적 인물'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하얼빈 정율성 기념관에서 당시 만주를 비롯한 중국인들의 식민지 조선인들의 다양한 선택들을 생각하면서 하얼빈에서의 마지막 일정, 그리고 4박 5일 남만주철도 답사의 최종 일정을 마치고 하얼빈 국제공항으로 향했다.

www.kci.go.kr

Ⅵ. 나가며

2026년 7월 3일 현지 시각 오후 2시 45분 하얼빈에서 인천으로 가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남만주 철도 답사의 여정은 마무리되었다. 역사학도에게 있어서 현지 답사는 문헌 자료로만 접하던 역사적 사실을 현장에서 체득하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공부이다. 『사기』를 쓴 사마천도 평생 중국 전역을 5번 여행했다고 하지 않았던가? 그런 점에서 이번 남만주 철도 답사는 만주의 근대사를 전공으로 연구하는 필자에게 있어서 귀중한 답사였다. 만주의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도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이제 남만주 답사 동안 자주 가졌던 몇 가지 생각들을 정리하면서 답사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다.

먼저 철도가 만주의 근현대사에서 가지는 의미가 생각보다 상당히 컸다는 점이다. 답사단이 지나갔던 도시들, 대련, 심양, 장춘, 하얼빈 모두 만주의 철도가 낳은 근대 공간이었다. 또한 만주 근현대사의 굵직한 사건들이 대다수 철도를 끼고 벌어진 사건이었다. 안중근의 이토 히로부미 암살, 만주 군벌 장작림의 폭살 사건, 만주사변 등은 모두 철도역과 철길 위에서 벌어진 사건이었다. 그 현장을 다니면서 만주 근현대사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동청철도, 남만주철도 등 다양한 철도에 관한 연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또한 이번 남만주 답사를 통해서 만주의 독자적인 문화와 역사성을 느낄 수 있었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이후 만주는 현대 중국 국민국가의 동북 삼성으로 편입이 되었지만 그 이전까지도 나름의 독자적인 문화적, 역사적 흐름이 있었다. 심양고궁의 대정전과 영복궁의 온돌 시설에서는 만주인만의 내륙아시아적 문화를 느낄 수 있었고 심양의 장작림-장학량 고거에서도 중원의 정치와는 독립적인 정권을 수립하려 했던 봉천 군벌의 시도를 엿볼 수 있었다. 만주국의 수도 장춘에서도 비록 일본에 의한 괴뢰적 성격이 강하지만 청과 봉천 군벌로 이어지는 만주의 독자성을 가져가려는 역사적 흐름을 느낄 수 있었다.

남만주 지역을 답사하면서 새삼 느끼게 된 또 다른 한 가지는 근대 한국인의 국제성이었다. 많은 식민지 조선에 거주하던 한국인들은 철도를 이용하여 만주로

www.kci.go.kr

건너가 독립운동, 문학활동, 친일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벌였다. 이번 답사 기간 만주 곳곳의 한국인들의 흔적을 찾아 다니면서 어쩌면 그 당시 살았던 조선의 지식인들은 현재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국제적이었고 세상을 보는 시야가 넓었을 가능성이 컸다고 생각했다. 또한 그러한 생각이 들수록 분단된 현실 속에서 대륙과 이어지지 못하고 섬처럼 고립된 현대 한국인의 상황도 대비되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다.

마지막으로 남만주 답사를 다니면서 생각해 본 것은 만주의 근현대사 유산이 신중국에 어떻게 활용되었나?라는 부분이다. 현대 중국에서는 만주 근현대사에 대해서 '동북윤함기' '위만주국 시기'라고 부르며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최근 들어 만주국의 푸순 탄광과 안산 철광 등의 공업 유산이 신중국의 산업 발달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음을 밝히는 연구들도 나오고 있고 이번에 방문한 만영영화제작소 박물관에서도 만주국의 영화 제작 유산이 신중국 초기의 선전 영화 제작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또한 만주 근현대의 비극이라고 할 수 있는 만주사변, 731부대의 만행이 일어난 장소들은 현대 중국에서 항일 정신과 애국주의를 고취하여 중국 국가의 결속력을 응집하는 상징적인 장소가 되어 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과거의 만주가 현재의 만주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이번 답사를 통해서 많은 선생님을 뵐 수 있었다. 특히 토지 연구회 선생님들을 비롯한 여러 한국 현대 문학을 전공하시는 선생님들과 교류할 수 있었는데 그분들을 통해서 역사학 쪽으로만 편중되던 나의 경험을 문학 쪽으로도 넓힐 수 있었고 만주에서 활약한 조선인 문인들에 대해서도 새롭게 알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선생님들의 햇살 같은 따뜻함 덕분에 정말 편안하고 행복한 답사가 될 수 있었다. 답사를 함께 한 동반자 선생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www.kci.go.kr